

『동의수세보원』의 논리근거를 논함

심승극*·김형조*

인류문명 발전사를 돌이켜볼때 그 어떠한 성적이든지 모두 선배들의 과학성적을 계승하는 기초상에서 얻은것이다. 『동의수세보원』 일서의 출세도 그러하다. 『동의수세보원』은 사상의학(四象醫學)의 창립적 저작으로써 고대철학사상과 중의약(中醫藥) 이론을 흡수하고 장기적인 실천활동중에서 점차 형성된 상(象)을 분별하여 치료를 론하며 약물을 상에 따라 나누어 쓰는 등을 특색으로 하는 하나의 독립적이며 독창적인 의학체계이다.

본문은 『동의수세보원』 일서의 논리 근거에 대하여 론하고자 하니 부당한 점에 대하여 서슴없는 가르침을 주시기 바란다.

1) 『동의수세보원』은 『주역』의 이론을 논리, 근거로 간주하였다.

이제마선생께서는 『동의수세보원』에서 <나는 의학경험이 있는지 5,6천년후에 탄생하였는바 앞사람들의 논설에서 우연히 사상인(四象人)의 장부성리(臟腑性理)를 얻게되어 일서를 저작하였는바 『수세보원』(壽世保元)이라 부르게 되었다 『靈樞』중에 태소음양(太少陰陽) 오행인(五行人)론이 있지만 약간의 의형을 얻었을 뿐 장기의 원리(臟理)를 얻지 못하였으며 정밀한 연구를 하지 못하였다.> 고 지적하였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바 이제마선생께서는

<황제내경(黃帝內經) 영추(靈樞) 통천편(通天偏)의 계발을 받으셨다. 『황제내경』은 고대문학의 의학 전문서적이므로써 『주역』(周易)의 알갱이를 흡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창조성적으로 『주역』의 많은 이론을 발전시켰다. 태소음양 오행인론이 바로 『주역』의 원리를 의학중에 구체적으로 응용한 것이다. 때문에 고대에 벌써 <주역을 모르면 의학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말이 있었다. 이제마선생께서는 <영추> 중 비록 태소음양 오행인론이 있지만 장부성리에 대하여 천명치 못하였으며 정밀한 연구가 없다고 인식하셨다. 이로하여 그는 연구중 우연히 사상인 장부성리를 체득하게 되었다. 필자는 이제마선생께서 사상의학에서 논한 사상(四象)이란 곧바로 『주역』에서 말하는 사상이며 네가지 부동한 상징(象徵)을 가지고 있는 네 분류의 사람을 가리키는 사상이라고 인식한다. 즉 『주역』이론을 사상 의학에 구체 응용한 것이다. 때문에 『동의수세보원』의 첫편에 <易有太極, 是生兩義, 兩義生四象>이라 써 넣었으며 천인(天人)은 호상 호응함으로(天人相應) 사람의 장부지간의 관계도 자연규율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변화규율에 순응한다고 인식하셨으며 <五臟之心 中央之太極 五臟之肺脾肝腎 四維之四象也> <천품의 장리에 네가지 부동이 있

* 훈춘시 중의 병원

다. > 폐장이 크고 간장이 작은자는 태양인이고, 간장이 크고 폐장이 작은자는 태음인이고, 비장이 크고 신장이 작은자는 소양인이고, 신장이 크고 비장이 작은자는 소음인이다. >라고 논설하였다. 그는 사람에게 네가지 부동한 성정의 변화가 있으며 성정이 변화가 있으므로 하여 네가지 부동한 부류의 장리를 형성하며 부동한 부류의 장리(臟理)가 있음으로 하여 네가지 부동한 외계상징을 표현하는 네가지 부동한 부류의 사람을 형성한다고 인정하였다.

바로 『동의수세보원』에서 『주역』의 원리 <兩義生四象>이란 이론으로 유기체의 생리, 병리, 치료원칙, 치료방법, 예방 및 약물사용과 양생원리에 이르기까지 설명, 천명하였으며 시종 일관적으로 사상설(四象設)을 이론공구로 간주한다. 때문에 우리는 『동의수세보원』은 『주역』의 이론을 논리의 근거로 간주한다고 인정한다. 이 점에서 말한다면 사상의학 이론을 발굴제고하려면 반드시 『주역』의 도리를 깊이 연구하고 그 내용을 심도있게 장악하여야 사상의학의 진정한 비밀을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2) 『동의수세보원』은 음양학설에 근거하여 논리를 세웠다. 『주역』학설은 인식컨대 음양은 태극에서 산생하며 음양(陰陽)의 변화는 일체 사물이 형성, 변화, 발전하는 근원이며 사상을 산생하는 모체이다. 태극(太極)이 동(動)하면 양(陽)이 생기고 정지(靜止)하면 음(陰)이 생기며 음양의 상호 상봉과 교합에서 태소음양 사상이 산생한다. 리제마선생은 유기체가 태소 부동한 장국(臟局)을 형성하는 것은 음양이 변화가 있기 때문이라고 인식한다. 그 근본은 사상의학에 음양이론을 응용한 것은 음양을 사상설의 설명 공구로 쓰는 것이며 사상포국(四象布局)의 형성하는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며 사상설과 한맥줄기이다. 유기체를 놓고 말할때 오장지심은 태극이며 오장지심 중앙지태극의 음양 변화

는 성정(性情)의 변화이다. 즉 회, 노, 애, 락 네가지 성정의 변화이다. 바로 『동의수세보원』에서 지적한 것처럼 <太少陰陽臟局之短長 陰陽之變化也> <哀怒之氣陽也 喜樂之氣應也>, 이로부터 알 수 있는바 太少陰陽之人 肺脾肝腎 臟局의 大小는 오장지심 태소음양 성정의 변화로 인하여 상호연계 있는 네가지 성정을 가진 臟局의 대소를 형성한다. 이러한 내재적(內在)상징이 있음으로 하여 네 부류의 부동한 체형, 용모, 심리, 성격, 체질, 약물에 대한 부동한 반응, 부동한 병증 등 외계상징을 나타내는 태소음양 사상인을 형성한다. 바로 사상의학은 음양사상이론에 기초하였기 때문에 약물사용에서도 <약은 사상에게 국한된다>, <약물은 상에 따라 나눈다>, <약물은 반드시 상에 따라 쓴다>는 등등의 독특한 견해가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자연, 사회도 모두 <太極生兩義, 兩義生四象>의 자연법칙에 순응함으로 天, 人, 性, 命으로부터 天機有四, 人事有四에 이르기까지 兩醫生四象의 도리로 서술하였다. 이제마선생은 <太極生兩義, 兩義生四象>의 이론으로 인체생리기능, 병리변화를 해석하였다. 바로 음양의 변화에서 사상(四象)이 화생(化生)한다는 원리를 지도사상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五臟之心 中央之太極也 五臟之肺脾肝腎四維之四象也> <心者一身之主宰 耳目鼻口 無所不察 肺脾肝腎無所不恃 頤臆臍腹無所不誠 頭手腰足無所不敬>등 논설이 있게 되었으며 인체 자연, 사회, 장국대소, 생리, 약물에 이르기까지 모두 사수(四數)를 기준수로 사행설(四行設)을 형성하였다. 필자는 리제마선생께서 후세에게 <우연히 사상인의 장부성리를 얻게 되었도다>라고 알려주는 <사상(四象)>에 숨어있는 의미는 사상설이라고 인식한다.